

# 전남공고, 9급 공채 5명 합격

“희망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합격 비결”

박주정 교장 “지역 명문 특성화고 거듭 나갈”



전남공업고등학교는 2019 지방직 9급 공무원 공채에 총 5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9급 공채에 김동우, 허건(이상 건축직), 정민서, 유성훈(이상 토목직),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축직 9급에 장준영 학생이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토목과 정민서 학생(3년)은 광

주광역시청과 전남도청에 동시 합격해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합격의 비결로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올 때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민서 학생은 전기과에 입학했다가, 토목과로 진로를 변경해 재입학 후 마침내 자신이 꿈꾸는

직장에 합격한 모범 학생이다. 교육청 9급에 합격한 장준영 학생(3년)은 “일반인과 동일 조건에서 합격하였으며, 2학년 때부터 공무원 반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해서 기대한 성과가 나왔다”고 기뻐했다.

광주시청에 합격한 건축과 김동우 학생(3년)은 장태 포부로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고, 초심을 유지해 특성화고 졸업생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고등학교 졸업 후 다양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남공고는 공기업, 공무원, 기업 등에 취직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기업들을 포함해서 시청, 도청, 교육청 등의 공무원 시험에 지속적으로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다.

전남공고 박주정 교장은 “전남공고는 우수한 교사진과 최신 교육 시설을 갖춘 지역 명문 특성화고로 학생들이 졸업 후 희망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합격 학생들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조인호 기자

# 장흥교육지원청, 그럼에도 좋은 혁신학교 이야기 나눔

초·중학교 교원 100여 명과 함께하는 성찰의 날



장흥교육지원청은 5일 장흥공전웨딩컨벤션에서 관내 초·중학교 교원 100여명과 함께 2019년 혁신학교 이야기를 공유하는 ‘성찰과 나눔의 날’을 운영하였다.

전남혁신학교는 민주성, 공공성, 자발성, 미래성을 기본 운영원리로 하고 있다. 또한 ‘존중과 협력의 학교문화 형성’, ‘교육과정 중심 지원체제 구축’, ‘역량중심 교육과

정 운영’, ‘학부모 지역사회 협력 관계 구축’을 중점과제 실현하여 민주시민을 길러내고자 한다.

장흥은 2019년에 관내 초·중 24교 중 6개 학교가 전남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었다. 이번에 실시된 연찬회는 학교혁신 전담회를 위해 혁신학교와 일반학교간의 사례를 공유를 위해 월드카페 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발표되었던 6개 학교별 주제는,

장흥남초등학교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관계 구축, 용산초등학교 전문직학습공동체와 수업혁신, 장흥유치초·중학교 교직원들의 민주적 협의문화, 장흥장평중학교 교육과정 수립과 수업혁신, 장흥안양중학교 학생자치와 공간혁신, 회덕중학교 혁신학교 1년차의 발돋움이다.

혁신학교 주제 발표를 했던 한 선생님은 “순탄한 과정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학교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선생님들과 나누고 공유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일반학교 선생님께서 혁신학교에 대해 ‘아!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이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혁신학교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어서 뿌듯했다.”며 발표 소감을 이야기했다.

한편 장흥은 2020년 전남혁신학교 신규학교가 1교 추가되어 7교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장흥교육지원청은 학교혁신 전담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할 것이다.

장흥=위지훈 기자

# 목포공공도서관, 2019평생학습 성과발표회 성료



목포공공도서관이 지난 7일 목포공공도서관 시청각실에서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만드는 작은 콘서트’를 주제로 2019 평생학습 성과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1년 동안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배운 실력을 가족들과 다

른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는 작은 콘서트로 진행됐다.

꼬마 어린이의 양증맞은 ‘백조의 호수’ 발레 공연을 시작으로 9팀이 제각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꽉 찬 무대를 선사해줬다. 특히, 엄마의 공연에 함께 무대에 선 아이들과 아이들의 공연을 응원해 주는

부모님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어린이, 학생, 수강생, 동아리 회원 및 도서관 이용자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시간이었다.

이날 공연은 목포공공도서관의 한마음 연합봉사단 부단장인 윤동립 씨의 유쾌한 진행으로 관객과 출연자가 따로 없었다. 대형공연장 처럼 무대마다 카메라 후레쉬가 터졌고, 진행의 실수도 큰 박수로 격려해주며 맘껏 웃으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오철록 관장은 “1년간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고 그 성과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모두가 목포공공도서관을 통해 행복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통해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 전문적 학습 공동체 공감 콘서트 개최

전남도교육청이 6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교원 및 교육행정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전문적학습공동체 공감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날 공감 콘서트는 수업혁신과 학교 현장의 소통문화 개선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전문적학습공동체 정착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교육청은 자발성·동료성·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원들의 수업 혁신 실천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도내 전역에서 1,811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선정해 23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교사들은 주제, 교과, 학년, 관심 분야, 학교 현안 문제해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교 안과 학교 밖 학습공동체를 결성해 수업혁신을 위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며 함께 성장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올 한 해 현장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별 원탁토론회, 성과 나눔 공유회 등을 개최해 교원들의 정책이해와 호감도를 높였다.

또한, 수업혁신을 위한 원격 연수를 개설해 2,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현장 기획형 특수 분야 연수에도 69개 팀이 공모해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마련했다.

이날 박일관 전북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행복한 배움의 일차적 주체는 교사이다.”고 말했다.

원도=김광수 기자

# 완도교육청, 민주 조직문화 워크숍

완도교육청이 지난 6~7일, 1박 2일 간 전라북도 고창 및 익산 일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9년 완도교육지원청 주요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및 환류를 실시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통한 부서 간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첫째 날에는 2019년 성과와 혁신방안에 대한 자유토의와 청렴 향상을 위한 골든벨을 운영하고, 둘째 날에는 공연 관람과 선운산 등반 체험으로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를 제공했다.

원도=김광수 기자

# 아빠와 함께하는 다(多) 어울림 소통·공감 캠프 운영

담양교육청은 지난 7일 다문화 가정 아빠의 자녀 이해 및 소통 기회 마련을 위한 아빠와 함께하는 다(多)어울림 소통·공감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옥과초 김기자 수

석교사의 진행으로 ‘알사탕’이라는 대화책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법을 체험하고, 부모 나라 전통의상 집기를 통해 부모 나라에 대해 알아보았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했지만 책을 통해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집에서 꼭 실천해 보고 싶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